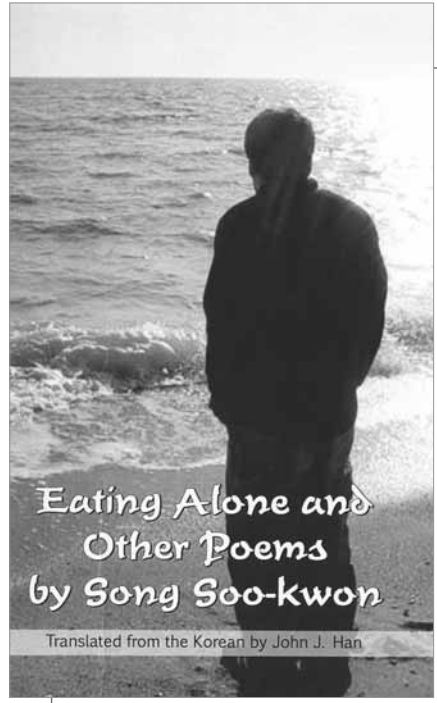


'남도 서정' 송수권 詩 세계인이 읽는다

따끈한 겨울 이야기 24題

다다창작스튜디오 다음달 3일까지 세시봉 전시



▲미국서 발간된 단행본

美대학 한재남 교수 '혼자 먹는 밥' 등 미국서 영역본 발간 10년전 전라도 여행하며 인연... 서정적이고 미적인 시에 매료

송수권 시인의 영역본 시집 '혼자 먹는 밥 그리고 시편들'(Eating Alone and Other Poems-이하 '혼자 먹는 밥')이 최근 미국에서 발간돼 화제다. 이번 영역본은 미주리주립대학교 한재남 교수가 수년에 걸쳐 진행한 작업의 결실로, 송 시인의 시집이 미국에서 영역돼 발간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한국문학번역원이 문학 한류 확산을 기치로 올해 30여 명의 문인을 해외에 소개하는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지만, 미국의 대학 교수가 남도 출신 시인의 작품 70여 편을 영역 발간한 것은 드문 일이다.

이해 한국문학번역원이 문정희, 나희덕, 김경주 시인의 시를 영어와 불어, 독일어, 중국어 등으로 번역해 해외에 소개하는 작업과는 차원이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송 시인의 시를 번역한 한 교수는 서문에서 "그를 만난 것은 2006년 전라도 지역을 방문했을 때로, 당시의 송 시인은 순천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로 재직 중이었다"고 밝힌다. 전라도 출신이라는 공감이 서로에게 가깝게 다가가는 계기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당시 두 사람은 섬진강에서 하동까지 여행을 함께 하게 된다. 동서화합의 상징인 화개장터와 인근 사찰을 둘러며 우정을 쌓는다. 한 교수가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날, 송 시인은 몇 권의 시집을 건네고 한 교수는 서정적이면서도 미적인 송 시인의 시에 매료된다.

이후 한 교수는 2013년까지 대학의 여러 학사와 프로젝트 일정으로 바쁜 시간을 보낸다. 그러다 2014년 크리스마스 전후를 계기로 번역에 집중하게 되고 비로소 영역을 완간하기에 이른다.

한 교수는 "비록 나의 게으름으로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새로운 시각으로 독자와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한다"며 "어린 시절부터 시를 읽었지만 송 시인의 시만큼 강렬하게 다가온 작품은 없었다"고 밝힌다.

이번 송수권 시집의 영역본에는 시인의 대표 가운데 하나인 '혼자 먹는 밥' 외에도 '젖은', '강', '내사랑은', '여승' 등 그의 시 세계를 가늠할 수 있는 작품들이 수록돼 있다. 표제작 '혼자 먹는 밥'은 2007년 발간된 '송수권 시선집'에 실린 시로, 단절된 현대인들의 자화상이 형상화돼 있다.



한재남 교수



송수권 시인

"혼자 먹는 밥은 쓸쓸하다(It is sad to eat alone) / 숟가락 하나(a spoon) / 낫것가락 둘(a pair of brass chopsticks) / 그 불빛 속 딸그락거리는 소리(the clatter of dishes under the light) / 그릇 씻어 엎다 보니(After washing a bowl I put it upside down) / 무덤과 밥그릇이 닮아 있다(It looks like a burial mound)"

흔히 '혼자 먹는 밥'을 줄여서 '혼밥'이라고 한다. 세상과의 단절된, 또는 스스로 소통을 거부하는 이들의 삶의 양상을 함축하는 말이다. 이와 달리 요즘 TV 프로는 요리가 대세일 정도로 음식 이야기가 차고 넘친다. 이런 추세와 정반대인 '혼밥'은 다름 아닌 외로움과 고독을 상징한다. 시인은 "혼자 먹는 밥은 쓸쓸하다"며 "그릇 씻어 엎다 보니 무덤과 밥그릇이 닮아 있다"고 노래한다.

송수권 시인은 "내 시가 영어, 독어, 일어, 중국어 4개의 언어로 번역된 적은 있지만 영어 단행본으로 출간된 것은 처음이다. 한 교수의 언어적 감각, 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송 시인은 이번에 번역 시집 출간과 아울러 18번째 시집 '신화를 삼킨 섬-흑룡만리'(지혜)도 펴냈다. 이번 신작 시집은 제주도의 신화, 역사, 문화 속에 드리워진 제주도의 실체를 탐색한다.

제주도는 고유의 원형 이미지가 가장 많이 남아 있는 지역 가운데 하나다. 문헌에 따르면 신화시대에는 1만8000의 신이 살았다고 한다. 희랍신화와 비교해도 인물이나 배경이 방대할 만큼 흥미롭고 역동적이라는 것이다.

한편 고흥군은 최근 '송수권 시 문학상' 시상식을 개최한 바 있다. 송수권 시문학상은 지난 9월 1일부터 한달간 응모한 총 219명의 작품(기성 91점, 신인 1280편)의 심사를 거쳐 강희근 시인의 '프란치스코의 아침'을 대상(상금 3000만원)에 선정했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찬바람이 불기 시작한 늦가을, 대인예술시장 다다창작스튜디오가 12월 3일까지 '월동'을 주제로 세시봉 전시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강영숙, 고재근, 김엽, 김좌현, 김창현, 김태성, 김향득, 류희남, 박인선, 박재완, 백계철, 서병운, 서영실, 이다애, 이승일, 정영대, 조은솔, 황백 등 작가 18명이 참여해 사진·회화 등 작품 24점을 선보인다.

1970~80년대만 하더라도 월동 준비라고 하면 연탄이나 뿔감을 미리 마련하는게 우선이었다. 김창현의 사진작품 '장승장'과 김향득의 '장작불'은 보기만 해도 뜨겁게지는 모닥불이 등장한다. 웅기종기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옛 서민들의 풍경이 그려진다.

김장은 예나 지금이나 중요한 행사다. 이웃사촌끼리 모여 배추를 버무리는 김태성의 '김장하는 날'이나 박재완의 '월동무 손질'은 가족들에게 맛있는 김치를 먹이려는 우리네 어머니들의 정성이 전해진다.

이밖에도 김엽은 회화 'snow'를 통해 흰 눈이 덮인 세상을 표현했고 박재완은 머나먼 길을 날아온 '가을철새'를 캔버스에 담은 등 작가들은 작품을 통해 겨울이야기를 들려준다.

문의 010-2620-8614.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박재완 작 '월동 무 손질'

'아름다운 작가상' 박남준 시인

한국작가회(이하 작가회의)의 '젊은작가포럼'에서 주관하는 '제14회 아름다운 작가상'에 박남준 시인이 선정되었다.

작가회의의 젊은 문인들로 구성된 '젊은작가포럼'은 '제14회 아름다운작가상' 수상자로 박남준 시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아름다운작가상'은 문학 적 성과와 삶이 본보기가 될 만한 선배 작가에게 작가회의 소속 젊은 작가들이 해마다 선정하는 의미있는 상이다. '젊은작가포럼'은 "이번에 수상자로 선정된 박 시인은 그동안 삶과 문학을 통해 욕망을 내려놓으려는 치열한 고뇌와 성찰의 길을 걷고 있는

점에서 귀감이 된다"고 밝혔다.

영광 출신인 박남준 시인은 전주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했으며 1984년 '시인'지에 '할매는 꽃신 신고 사랑노래 부르다가' 등을 발표하며 등단했다. 시집 '그 숲에 새를 묻지 못한 사람', '다만 흘러가는 것들을 듣는다', 산문집 '꽃이 진다 꽃이 핀다', '박남준 산방일기' 등을 펴냈다. 전주시 예술기상, 거창 평화 인권문학상, 천상병 시문학상 등을 받았다.

한편 시상식은 내달 19일(오후 6시) 마로니에공원 '좋은공영안내센터'에서 열린 예정이다. 문의 02-313-1486.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2015년 가장 많이 읽은 책은?

예스24, 다음달 16일까지 투표

2015년 한 해 독자들이 가장 사랑한 책은 무엇일까? 인터넷 서점 예스24는 '제13회 네티즌 선정 올해의 책 2015' 투표를 12월 16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한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네티즌 선정 올해의 책'은 도서 관련 온라인 투표 행사로, 문학, 인문·교양, 아동·청소년 등 5개 분야 총 120권의 후보작 중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24권의 도서를 선정한다.

올해 후보작에는 기시미 미치로, 고가 후미타케 '미움받을 용기', 프레드릭 배크만 '오베라는 남자', 사이토 다카시 '혼자 있는 시간의 힘' 등 다양한 분야 베스트셀러 120권이 후보에 올랐다.

투표 참여방법은 5개 분야 중 2개 이상 분야에서 총 4권 이상, 최대 10권의 책을 선택하면 된다. 투표에 참여한 전원에게 예스24 상품권 2000원을 증정하며, 추첨을 통해 '백북에어' 13인치 (1명), YES상품권 3만원(20명) 등의 푸짐한 경품을 증정한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7층 상가건물 매매
(북구 우산동 구호전 사거리)

7층 건물 (사우나 건물)

1층 (커피숍 입점 완료)
2층~5층 (사우나,주택)
6층~7층 (설계사 건설사)

월 수익 (1,020만)
사우나 직접 운영시 (2,000만)
(보 1억5천, 용 6억)

매가 17억

상무지구 사무실 임대
(상무지구 5층, 90평)

→ 5층전용, 90평

즉시입주가 / 시설완비

(주차2대 무료)
(시비 약간 있음)

상무지구 가장 저렴한 사무실
(우리은행 뒷)

→ 보 2천, 월 130만

신축상가원룸 매매
(전대 정문,후문 2분!)

신축 상가원룸 (4면 대리석시공)

1층 (상가,1칸)
2층~3층 (룸10개)
4층 (주택)

월 수익 (450만)
(보 4,000만, 용 1억)

→ 매가 6억9천

법률경매

1. 북구 오룡동 (근린상가주택) (토 500평, 건 904평)
→ (첨단지구 삼성전자 앞)
(1층상가, 120평-2~7층 룸 60개-8층, 주택겸사무실)
☆ 분할등기가능 (향후 60억가치있음)
☆ 임대수익 (보 3억, 월세 3천만)
(12월 1일) 경매일

감정가 35억4천 → **24억8천**

2. 서구 농성동 (토 86평, 건 263평)
감정가 5억7천 → **최저가 3억2천**
→ 지하 (국악연습실) 1층(상가) 2층~3층 (룸 10개) 4층 (주택)
☆ 농성역 부근, 서구 ki지사 부근

5. 광산구 남산동 (토 258평, 건 150평)
감정가 4억8천 → **최저가 2억1천**
→ 1층(제조업,냉동창고) 2층 (사무실)

경매 투자

1. 원금 보장(연수익 20%)
예) 1억투자시 연 이자 2천만원

2. 경매 전문 낙찰부터 개발기회 매매까지 책임중개

3. 단독/공동 투자 가능

※ 외 다수 물건있음 (5천만~10억) (10억~100억)

경매교육

경매 이제는 대중화시대!!
바로실전 교육듣고
수익창출가능

매주 수요일 (오전~오후반)
주말반 (오전~오후반)

경매기본교육부터 실전까지

(입찰, 매매, 임대~개발기획까지)

원스톱 강의

직원구함 (남,여직원)
경매, 부동산 법무실론 경매건설링 교육

경매 물건 추천

1. 북구 두암동 (근린주택)
(토 44평, 건166평)
감정가 3억5천 → **최저가 2억5천**

2. 북구 신안동 (근린주택)
(토53평, 건 140평)
감정가 2억9천 → **최저가 2억**

3. 서구 쌍촌동 (숙박시설)
(토 90, 건364평)
감정가 12억2천 → **최저가 8억5천6백**

수익성 상가 (근린시설,통건물)

① 수완지구 (우미린A.P.T 앞) 4층건물 (대지 144평, 건 260평)	→ 매가 17억
② 상무지구 5층건물 (우리은행) 금융가렛 (월수익 1,000만 - 보2억,용6억)	→ 매가 20억
③ 상무지구 상가 5층건물 (롯데마트앞) (대지 122평, 건423평)	→ 매가 28억
④ 광산구 월계동 1층상가 매매 (40평) (보 8백, 월 80만) (용 4천)	→ 매가 1억5천만
⑤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 6층 (45평) (보 1천,월60만) (용 5천)	→ 매가 1억1천만

수익성 상가 매매 (근린상가)

① 상무지구 정면 오피 3층 (30평) 한국은행 앞 (보1천,월60만) 임대완료	→ 매가 1억3천만
② 상무지구 수림 오피 6층 (23평) 롯데마트앞,상무나이트 옆 (보5백,월 45만- 임대완료)	→ 매가 8천5백만
③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19평) 롯데마트 앞,상무나이트옆 (용4천)보5백,월 42만)	→ 매가 7천5백
④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13평)롯데마트앞,상무나이트옆 (용2천)보3백,월33만)	→ 매가 4천5백만
⑤ 나주 삼영동 2층 상가 매매 (나주혁신도시10분,나주시청2분) (보2천,월200만)	→ 매가 3억

신축원룸 매매 (상가겸용)

①북구 중흥동 원룸 상가 (전대 정문2분,코너) (월수익 500만) (1층상가, 2개) (4층 주택) (2~3층-원룸 10개)	→ 매가 6억8천
②전대 정문 상가 원룸 매매(1층상가2개-투룸12개,원룸6개) (보4천5백,월720만)	→ 매가 7억8천만
③용평지구 원룸 (미래도 A.P.T 코너) 룸~20개 (엘리베이터 있음) 월수익 800만	→ 매가 11억
④ 광양 광명동 상가(A.P.T 12층(15평) 상가밀집지역,아파트단지) (보2백,월25만)	→ 매가 3천8백만
⑤ 서구 쌍촌동 대운파크 2층(11평) 운전역변출구 3분 (용2천)보3백,월32만)	→ 매가 3천6백만

010-7384-7800

010-6670-9800

062-382-5500, 010-6832-9700